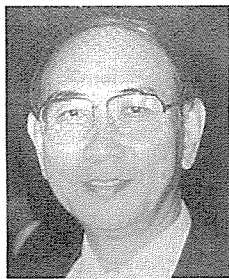


바이러스로 오는 유행성 각결막염(소위 아폴로 눈병)이 의심된다. 급성으로 갑자기 오는 결막염은 발병 후 1주일까지 전염력이 강하므로 수건, 대야 등을 따로 쓰고 손도 자주 씻고, 병든 눈에 댄 손으로 다른

염증이야 하고 함부로 안약을 잘못 쓰거나 남용하는 것은 절대로 위험한 일이니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거기에 알맞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

세균성인 결막염은 항생제 안약으로 급성인 경우는 잘 치유되지만 봄이나 여름철에 흔한 유행성 각결막염은 바이러스로 오기 때문에 특효약이 없으나 다만 세균이 겹쳐서 감염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심해지기 전에 곧 병원을 찾아야 한다.

나들이철 눈병... 결막염



李相旭

(서울강남병원 안센터 소장)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진단하기도 어렵고 잘 낫지도 않는 것에 만성결막염이 있다. 급성인 세균성 결막염의 치료가 불충분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먼지, 바람, 광선, 오염된 공기, 여러 만성적인 자극 등으로 온다. 급성때보다 만성때가 증상은 훨씬 가볍지만 원인을 없애주지 않는 한 잘 낫지도 않는다. 이밖에 봄철에 꽃가루가 식물성 분말 등에 감작되어 갑자기 눈이 가렵고 눈물이 나온다거나, 머리염색을 하다가 염색약이 눈에 들어가거나, 체질에 맞지않는 화장품이나 안약을 쓴 후에 갑자기 흰자위나 눈꺼풀이 붓고 가렵고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알레르기성(過敏性) 결막염이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 안약을 넣고 차가운 찜질에 항(抗)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좋아진다. 흔히 결막염하면 한가지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치료 방법도 그 원인에 따라 다르고 심하면 검은자위(角膜)까지 퍼져서 시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결막

감염력이 강해서 아무리 조심해도 대개는 성한 눈에까지 옮겨서 결국은 두눈을 앓는 고생을 겪는다. 대개는 2~3주 지나야 낫는다. 치료는 바이러스를 억제해서 기간을 단축시키는 안약을 쓰기도 하며 2차적인 세균감염 방지로 항생제 안약도 쓴다. 또 발병 1주일쯤 지나서 눈의 검은자위까지 침범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한두달 지나면 검은자위에 생긴 흔적은 없어지지만 때로는 영원히 남아 시력장애나 난시가 되기도 한다. 이 병은 워낙 전염력이 강해 집안이나 학교 또는 주위에 이런 환자가 있으면 접촉을 피하고 수건이나 대야 등은 따로 써야 한다. 그밖에도 음식점이나 다방에서 주는 물수건으로 함부로 눈을 닦아서도 안된다. 이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서 환자가 만진 물건은 끓일 수 있는 것은 끓여서 소독하는 것이 좋다. 항상 손을 깨끗이 닦아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상의 주의는 이 병이 유행할 때는 물론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모처럼의 화창한 날에 눈병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㉔

겨 울내내 방안에 주로 있다가 봄, 여름 바깥으로 나가면 산으로 들로 나간다. 따라서 봄, 여름은 눈병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눈의 흰자위(結膜)에 생기는 염증을 결막염이라 하는데 가장 흔하다. 원인은 세균과 바이러스로 오는 경우가 많다. 갑자기 눈이 충혈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붙어서 눈을 뜰 수가 없으면 급성 세균성 결막염의 증상이다.

외출 후엔 꼭 손씻어야

반면 눈에 모래가 들어있는 것 같이 깔깔거리고 눈두덩이 붓고 눈곱보다는 눈물이 줄줄나오는 경우는